무속 논란 재점화… 윤석열 "만난 적 있으나, 황당한 이야기"

후보일정·인재영입 관여 의혹
선대본부 고문 임명된 바 없어
권영세 선대본부장 "무속인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의 대선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보도가 17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이 재점화 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모 씨는 선대본부 산하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모 씨가 후보의 일정뿐만 아니라 메시지, 인사에 관여해 선대위 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선대본 측은 이날 오전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대해 "보도에 거론된 전 모 씨는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해명했다.

전국네트워크위원회는 기존 전국 단위 조직을 윤 후보 지원조직으로 개편하는 일을 맡고 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말씀하신 분은 무속인이 아니고 실제 후보와 직접 연관이 된 사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선대본 부본부장은 "오을섭 전국네트워크위원장이랑 관계있는 사람이지, 후보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1일 열린 당 대선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곤욕을 치렀다.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동네 주민이 손바닥에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5일 열린 6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천공스승·지장스님·이병환씨·노병한씨를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주술·무속 논쟁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천공스승을) 제가 알긴 합니다. 우선 멘토이니 하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라고 무속인과의 인연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속 신앙에 기대 관운을 점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속인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무당 등을 찾아 관운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고 밝혔다.

무속 신앙을 믿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윤 후보가 줄곧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달리 나오는 무속 의혹이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에 사인(私人)이 개입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이를 쉽게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후보는 불교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그 분이 무속인이 맞습니까. 제가 당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인사 한 적 있는데, 스님이라고 했고 법사(法師)라고 안다"며 "선대본 내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해당 기사를 봤는데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많이 응원한다고 인사를 한 적은 있으나, 배우자(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北 미사일 벌써 4번째… 與 종전선언 향방은?

북한 무력행사 계속 강행
범여권, 여전히 北 대화 중시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범여권의 '종전선언' 분위기에도 북한은 '우리식 무장노선'을 이어갔다.

임인년 새해 첫달들어 4번이나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늘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경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380㎞, 고도는 약42㎞로, 세부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앞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열차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2발을 발사했다. 11일과 5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동일한 궤도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앞서 이들 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히면서, 군사적 위험 수위를 높여왔다.

그렇지만, 범여권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면서 '멸공'과 '주적'과 같은 용어를 두고 야당과 정치적 논쟁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국면을 놓고 여권과 야권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봐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재명이네뉴스룸 제10호를 발간하면서 권두에 '금강산 재개·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린 것이기에 지난친 색깔론은 자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22사단(강원도 고성군)의 연이은 경계실패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른 경계취약지의 관광화와 북한의 철도미사일 상항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내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제명이네뉴스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경제협력과 공동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발사일보다 사흘 전 열차발사처럼 이미 전력화된 무기의 운용숙달 및 성능개량 차원의 동계훈련 쪽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미국을 의식한 수위 조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평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자녀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가 발탁된 셈이다.

김영식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를 사실상 승진 시켜 인선한 셈이다. 업무 인수인계 및 검증 절차 문제 역시 민정수석실 근무 인원인 만큼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정수석 공석이 길어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며, 임기는 내일(18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임 김 민정수석은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퇴직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신임 김 민정수석은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에서 퇴직했고,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활동해왔다.

/최영훈 기자

"마지막 소임" 심상정, 선거운동 재개

"침묵 속에서 깊이 성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갑작스럽게 선거운동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약속드리겠다. 저 심상정은 결코 여기서 멈춰 서지 않겠다"며 공식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심상정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일각에서 지지율의 답보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숙고에 들어갔고, 심지어 후보 사퇴 우려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한 지지율 때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깊이 성찰했다"며 "국민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었고 지난 진보정치 20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 극심해졌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文-UAE 총리 만남… 왕세제 회담은 불발

수소분야·사막 농업 등 협력 논의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UAE) 부통령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천궁-Ⅱ 계약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 분야 협력, 우주 분야 협력, 사막 농업 및 해수 담수화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사막 벼 재배 연구, 스마트 온실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제3국 해수 담수화 시장 공동 진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협력을 계속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각별한 우정으로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 성과에 대해 감탄하게 되며, 특히 바라카 원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바카라 원전에 만족한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 발언 이후 원전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는 국방·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동 연구개발, UAE 내 생산, 제3국 공동진출로 이어지는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만 UAE 순방 기간 예정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 간 만남은 불발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